

<서평>

『요한의 신학』

김동수 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3

송진순*

이 시대 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모두의 안전을 이유로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였다. 교회가 한국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 헌신해온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은 배타적 집단이 되었다. 교인과 교세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다변화하는 매체 환경, 세대, 성별, 이념 갈등 그리고 초고령화, 저출생의 격랑 속에서 대다수 교회가 휘청이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아드 폰테스’(ad fontes), 근원으로 돌아가 신앙과 신학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신학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요한의 신학』은 신앙과 신학의 위기를 넘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성을 회복하는 귀한 여정을 제안한다. 이 책은 김동수 교수가 요한복음의 교회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요한복음의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엮어낸 것으로 요한 신학의 핵심 주제를 깊이있는 통찰로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고 결코 건조한 연구 결과물은 아니다.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목회자로서 신앙과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요한 신학 연구의 단단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 신학함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책은 1부 ‘신학자 요한’, 2부 ‘요한의 신학’, 3부 ‘요한계 교회’라는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신약학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요한 신학 서설을 통해 저자의 요한복음 신학의 방향을 명확하게 밝힌다. “위대한 신학자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 자신의 용어와 관점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생애에 관해 기술하였다. 요한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의 본질을 꿰뚫어 복음서를 기술함으로써 요한복음의 기독교론, 예수의 신성과 삼위일체론이 기독교 교리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영향사적 측면에서도 요한복음은 기독교 역사에서 다양한 신학 사상과 교파 형성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본서 서설에서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당연한 전제를 재차 확인하는 이유는, 최근 요한복음 연구들이 요한 신학 자체에 관심하기보다는 성서 본문을 벗어나 시대의 경험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재구성되거나 혹은 역사적 관점만을 강조하여 신학적 메시지를 등한시하는 경향, 즉 성서와 신학이 분리되는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연구가 지향할 바가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함이다. 책 서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평생 요한 신학의 연구자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만큼이나 본문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성실하고 섬세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요한 신학이 가야 할 바를 모색한다. 그것은 단순히 서구 신학의 방법론이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저자 나름의 신학과 관점을 갖고 요한복음의 주제를 일관성 있게 설명해가는 연구임을 이야기한다. 성서는 신학과 분리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 하에, 본서는 요한의 삼위일체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등 전통적인 신학 주제에서부터 시간관, 제자론, 기도론의 세부 주제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 저자의 신학 사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신학을 입문하는 사람이나 신학을 심화 연구 사람 모두에게 복음의 기본기를 다지는 작업이 될 것이다.

서설에서 신학자 요한을 스케치한 본문도 흥미롭지만,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요한의 역사와 신학을 다룬 부분이다. 20세기 후반 요한복음 연구에서 역사와 신학의 관계는 신학 방법론의 최대 이슈였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마틴(J. Louis Martin)의 『제사복음서의 역사와 신학』(*History & Theology in the Fourth Gospel*, 1968)이 출간된 이후 요한 신학에서는 1세기 말 요한

공동체의 역사적 정황을 재건한 마틴의 연구가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요한복음은 유대인에게 박해받는 요한공동체가 예수의 이야기에 투영된 ‘두 차원의 드라마’라는 그의 제안은 켈페르, 보이틀러, 보컴 등 학자들의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요한 신학과 역사를 해석하는 부동의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최근 프라이(J. Frey)는 자신의 저서 『제사복음서의 신학과 역사』 (*Theology & History in the Fourth Gospel*, 2018)에서 마틴의 연구와는 반대로 요한의 신학을 바탕으로 요한공동체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김동수 교수는 프라이의 연구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프라이가 마틴의 역사우선권이 갖는 해석의 난제를 극복하고 신학의 우선권을 주장한 것, 성령을 통해 요한신학을 재구성한 것은 분명한 공헌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한다. 이에 신학과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 말씀의 전승이 어떤 상황에서 말해졌는가 라는 독자의 정황에 대한 고려를 제안한다. 신학은 통시적 역사와 특정 상황을 포함하는 공시적 역사까지 아우르는 통전적 이해 속에서 재건되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신학을 정도로 해석하는 통찰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조직신학의 기초가 되는 삼위일체론에서부터 다양한 신학 사상들을 주제별로 다룬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삼위일체론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신학화되고 있는가. 이는 단순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동일성과 역할과 기능의 차별성 및 연속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요한 신학의 기틀을 형성한다. 하여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예수의 상호내주가 예수와 제자들과의 상호내주로, 신적 속성을 넘어 어떻게 교회 내 코이노니아 통해 확장되는지 설명한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는 요한 신학의 본질로 교회와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신학의 독특한 주제이면서 김동수 교수의 요한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성령이다. 어느 복음서에도 출현하지 않는 ‘보혜사’라는 용어

를 통해 요한은 성령의 독특한 관점을 유지한다. 그것은 요한공동체 혹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영의 활동이다. 구약성서와의 관련성에서 본다면, 성령은 정결의 영과 예언의 영에 대한 약속이 통합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이는 요한의 기독교론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바울과 누가의 기술한 성령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요한의 신학적 관점, 그것은 성령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학적 주제가 수렴되고 있음을 설득력있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성령론과 관련하여 본서는 성령에 대한 해석을 창발적으로 제안한다. 요한복음 여러 곳(2, 12, 15장)에서 언급된 ‘성령의 기억나게 하기’를 우선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 말씀 해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둘째, 구약성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연구한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깨닫는 것을 넘어 기독교론적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를 형성한다. 예수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를 통해 그의 사명과 인격을 이해하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확신을 더하는 것은 구약성서와의 연결성이다. 구약성서 해석을 통해 ‘성령의 기억나게 하기’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계시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성서 해석의 더 넓은 해석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요한복음과 구약성서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넘어 성령을 매개로 요한 신학과 요한 공동체 나아가 교회가 어떻게 해석의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해석의 공간을 열어 갈 것인가를 창의적 시선으로 제안한 것이다.

신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과정으로서 세계를 통찰하는 연구 작업이지만, 교회의 모든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신학은 교회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흔히 요한복음에는 교회론이 희박하다는 주장에 맞서 본서는 요한복음 신학의 독특성, 즉 요한의 기독교론에 입각한 교회론을 설득력 있게 피력한다. 요한의 교회론은 삼위일체론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일치, 특히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보여주는 바, 사도의 모임이 교회(에클레시

아)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새 이스라엘이자 교회로 상징된다는 것이다. 요한의 교회는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생명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예수 이후 보혜사 성령을 통해 신자들 사이의 평등한 친교가 바로 요한이 그리는 교회인 것이다. 이는 이 현재 세속화된 교회, 사회적 계급과 진정한 친교의 가치를 상실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원형으로 목회 현장에서 여전히 울림있는 요한 신학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또한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고 소통해야 하는가에 대해 본서는 요한의 세계관을 통해 그 해답을 풀어간다. 어느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의 이원론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와 아래, 영과 육, 빛과 어둠, 영생 및 멸망, 진리와 거짓 등의 대립적 용어를 비롯하여 세상으로 대변되는 유대인들과 요한공동체와의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선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는 박해받는 공동체가 형성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요한복음 신학은 고기 독론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의 정수를 형성했지만, 이원론적 세계관과 이에 근거한 배타적인 공동체라는 존재론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본서는 미라슬로브 볼프(M. Volf)가 『배제와 포용』에서 ‘요한복음은 이원론적이라기 보다는 대립적 이원성을 갖는다’라고 한 설명에 착안하여 배제를 넘어선 포용으로 요한 신학을 서술해간다. 볼프는 상반된 존재론적 원리가 이원론의 핵심이라면, 요한복음은 그보다는 대립적 이원성만 갖는다고 제안한다.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은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을 영원히 배제하거나 타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여 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본서는 요한이 엄혹한 시대, 세상과 유대인으로 칭해진 적대자들을 제거할 적이 아니라 종국에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 파송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포용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비록 세상의 불신앙적 태도는 심판을 받지만, 세상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 공존의 대상이자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내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애제자와 수제자 베드로의 관계는 적자생존의 경쟁관계가 아니라 공존을 바탕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쟁관계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요한 신학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과 예수, 예수와 신자들 사이의 일치라는 하나됨이지 분열과 경쟁이 아니라는 데 방점이 있다. 이는 요한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공존할 발판을 제공한다. 이러한 요한의 세계관은 이 시대 교회가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찰하고, 교단과 교파 간 분열, 교회 내 다양한 갈등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공존의 방식을 모색하라는 권면으로 읽히기도 한다. 물론 요한이 세상을 끌어안는 구원의 역사가 당시 요한공동체의 삶에서 수많은 희생을 담보로 신학화한 작업이었다는 면에서,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의 배타적이고 이원론적 세계관에 균열을 내고 대안적 해석을 시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3부에서는 요한 공동체와 쿰란공동체를 비교하면서 요한공동체 나아가 요한 교회의 독특성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연구에서 오랜 논쟁 중 하나는 요한복음이 종교사적으로 헬라 사상에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쿰란 문헌 발견 이후, 이원론과 성령을 비롯한 사상적 이해나 형제 사랑, 세상과 적대 등 용어 상에서도 많은 유사점을 보이면서 유대 사상의 영향력에 대해 논쟁이 많았다. 심지어 쿰란공동체에서 요한공동체가 유래했다는 주장도 등장하는 상황에서 본서는 두 공동체의 자의식과 직제를 비교하면서 요한공동체를 규명한다. 그 결과 요한공동체는 공동체의 자의식은 강하지만, 공동체 구성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개별성을 유지한다. 반면 쿰란 공동체는 공동체의 자의식과 집단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쿰란공동체의 직제가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요한공동체는 수평적 관계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증명이 된다.

요한복음에서 재차 반복되듯이 하나님과 예수의 상호 내주만큼,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간의 상호내주가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이다. 특히 요한의 기독론을 중심으로 성령론과 제자론 그리고 기독론 자체로 공동체론/

교회론이 전개된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신자 자신의 개별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요한 신학의 차별성이기도 하다. 요한공동체에서 신자 개인은 성령을 매개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비록 요한의 서로 사랑의 계명(13:34)이 공동체의 내적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 세계와의 분리를 고착화한다 해도 그것이 개인이 사라진 공동체 우선주의로 나아가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시에 고도로 발전된 신학 사상을 기초로 한 요한 신학은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시금석이자, 공동체와 신자 개인의 관계성에 주목한 교회 갱신의 신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신자들이나 신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영적인 복음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복음서, 그래서 가장 매력적이고 깊이 있는 복음서로 간주된다. 복음의 참 본질, 신학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하는 교회 위기의 시대, 이 책은 평생을 요한 연구에 매진한 신학자의 날카로운 통찰을 목회의 관심과 따뜻한 신앙의 시선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하였다. 하여 영적인 복음서를 이성과 영성의 관점에서 독해할 수 있는 안내서이기도 하다. 신학자 요한의 필체와 신학 연구자 김동수 교수의 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조우하는 탁월한 해석의 여정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권해드린다.